

2. 니카라과, 산디니스따의 권력 복귀와 ‘갱 국가’의 강화

안드레스 빼레스-발또다노*

1980년대 혁명의 실험에 실패하고 난 뒤에 니카라과가 겪은 정치적·제도적 무력함이 이 글에서 ‘갱 국가’(Estado-mara)라고 부르는 현실을 야기했다. 갱 국가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갱단의 행동, 상징적 표현 및 조직행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 형태를 말한다. 부정적 정체성, 가족적 충성, 권력에 대한 사적·영토적 시각이 그 특징이다.

[Sandinismo/ Estado-mara/ Nicaragua;
산디니스모/ 갱 국가/ 니카라과]

독립 후,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건국에 착수했다. 그 성과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많은 나라가 ‘정복국가’(정복과 식민 경험이 남긴 사회 조직 모델)와 ‘국민국가’(국가의 한층 진전된 표현으로 독립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각국 지도자들이 규범으로 삼은 모델) 사이의 여러 지점에 포진해 있다¹⁾

*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의 정치학과 교수이자, *Conversación con Nicaragua: confesiones y reflexiones sobre el Estado, la iglesia y el exilio*, (Anamá, Managua, 2007)의 저자.

1) A. Pérez-Baltodano, *Entre el Estado Conquistador y el Estado Nación: Providencialismo, cultura política y estructuras de poder en el desarrollo histórico de Nicaragua*, Instituto de

정복국가는 일련의 구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부족한 사회조정 능력, 사회적·영토적 분열, 높은 외부의존도, 사회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 등이 두드러진다.

국가의 사회조정 능력 부족은 사회질서의 유기적 조직과 제도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법치국가 확립을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권력의 영토적 분산과 사유화를 용이하게 한다. 동시에 국가의 높은 외부 의존도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은 정복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사회의 막후에서 초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특징이 니카라과의 경우에 명백하다.

최근 20년 동안 니카라과에서는, 사회적·영토적 통합의 토대가 될 민주적인 합의를 창출하려던 국가 능력이 크게 손상되었다. 이러한 손상은 또 다른 국가모델의 출현을 위한 조건들을 야기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사회과학의 관습적 어휘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7년 1월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이 권력에 복귀하면서 니카라과에 구현된 국가모델을 지칭하기 위해 ‘깡 국가’라는 개념을 개진할 것이다. 깡 국가란 중앙아메리카에서 ‘마라’라고 일컬어지는 갱단들의 행동, 상징적 표현 및 조직행태를 취하는 국가 행태를 말한다. 부정적 정체성, 그들의 조직 문화를 지배하는 가족적인 충성, 권력에 대한 사적·영토적 시각 등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향상진화

생물학에 향상진화(向上進化)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새로운 종(種)의 발현으로 귀결되는 점진적인 진화를 말한다. 이 개념이 본 연구의 주요 논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의 특정 순간에 사회가 경험하는 변화는 새로운 사회현실을 만들어내고, 이 현실 속에서 사회변화의 축적된 결과가 종합되고 실체화된다.

니카라과의 정치적·제도적 역사는 세 번의 향상진화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약탈국가'(Estado filibustero)의 출현으로, 1856년 미국인 윌리엄 워커라는 엉뚱한 대통령의 관할 아래 탄생했다. 영어를 사용하던 그러한 노예주의 국가는 오래가지는 못했으나, 독립 이후 국가적 합의 도출에 실패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엘리트들의 무능함을 드러냈다.

두 번째 향상진화의 순간은 '소모사 국가'의 출현에 해당한다. 이 국가 모델에서도 사회질서 확립의 토대가 될 헤게모니적 합의 구축에 실패한 엘리트들의 무능이 또다시 드러났다. 1857년에서 1893년 사이에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에 반해 국가를 통치했다. 반면 자유주의 엘리트들도 1893년에서 1909년 사이에 보수주의자들에 반해 국가를 통치했다.

1909년 시작된 미국의 개입은 끝없는 정당 간 전쟁을 종료시켰다. 니카라과에서 철수하기 직전인 1933년, 미국은 독재국가 출현에 적당한 토양을 구축했다. 독재국가 시대는 1936년 아나스따시오 소모사 가르시아(Anastasio Somoza García)가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1979년 산디니스따 민족해방전선의 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갱 국가’의 출현이 세 번째 제도적 향상진화에 해당한다. 이 새로운 종류의 국가에서는 산디니스타 혁명의 승리에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의 정치적·제도적 긴장, 좌절, 모순이 종합되어 있고 결정화되어 있다.

갱 국가의 창세기: 1979-2009년

1979년 산디니스타의 승리는 니카라과의 정치 역사에서 짧은 희망의 순간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혁명의 경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 분열과 경제 해체와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1980년대 말의 지탱 불가능한 상황이 분쟁 당사자들로 하여금 평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산디니스타는 국제선거감시단 관리 하의 선거를 수용했다. 1990년 국민야당연합(UNO)의 비올레타 바리오스 데 차모로(Violeta Barrios de Chamorro)가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미 피폐된 니카라과는 새로운 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기도 전에 새로운 타격을 입는다. 선거일인 1990년 2월 25일과 차모로가 취임한 동년 4월 25일 사이에 산디니스타 지도부에게 국유재산이 대규모로 이전된 것이다. 니카라과인들이 ‘삐냐타’(piñata)라고 명명한 공공재산 대규모 착복이 횡행한 데 대해 에르네스토 가르데날(Ernesto Cardenal)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산디니스타] 지도부는 국유재산을 훔쳐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에 넘기거나 자신이 착복했으며, 나중에는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의 재산까지 착복했다. 모두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전국지도부(Dirección Nacional) 위원, 당 간부, 고위 관료, 노조 지도자 대부분이 은행계좌, 주택, 자가용, 상사(商社), 슈퍼마켓, 커피 재배농장 및 목축농장, 제당 공장, 바나나 농장,

레스토랑, 텔레비전, 라디오, 육류 및 바나나 유통회사, 투자사, 금융회사를 차지했다.²⁾

착복에 따른 재산권의 난맥상이 오늘날까지 국가경제 정상화를 방해하는 불안정성을 야기했다. 2007년 산디니스따 민족해방전선이 권력에 복귀하면서 이러한 불안정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2007년 5월 <바리카다>(Barricada: 1980년대 산디니스따 민족해방전선의 신문)의 전 편집국장 까를로스 페르난도 차모로가 이끄는 '에스따 세마나'(This Week)라는 한 TV 프로그램은 산디니스따 민족해방전선 비서국에서 활동하는 일단의 산디니스따 변호사 그룹에 대해 폭로했다. 이들은 당이 사법체계를 장악한 것을 이용해, 불법적인 재산권 거래를 했다.³⁾ 다니엘 오르떼가(Daniel Ortega) 대통령은 정부청사를 마다하고 바로 그곳에서 정무를 처리한다. 게다가 대통령 관저도 당 비서국 바로 근처에 있다.

산디니스모만 갱 국가 건설에 기여한 것은 아니다. 1990년 이래 소위 '민주주의 이행기'의 정권들이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 역시 이러한 형태의 국가 구축을 도왔다. 사회적 기능을 축소하고, 심지어 국토 장악 역량까지 침식시킴으로써 공권력의 사회조정 능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 종속도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사회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도 증대시켰다. 이리하여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으면서도, 사회가 국가의 행동을 감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제도적 힘과 정당성은 1997년 산디니스따 민족해방전선과 우파인 자유헌정당(PLC) 간 협약으로 다시 타격을 입었다. 이 협약으로 두 다수파는 대법원, 선관위, 회계감사원, 검찰, 은행감독원의 주요 직책을 나누었다.

2) E. Cardenal, *La revolución perdida*, Anamá, Managua, 2003.

3) "Escándalo en FSLN" in *El Nuevo Diario*, 2007. 5. 28.

협약에는 양당 당수의 개인보호제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르떼가는 1998년 이 제도를 이용했다. 양녀 소일라메리카 나르바에스에게 강간과 성희롱으로 고소되었을 때 국회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과 산디니스마와 자유헌정당 국회의원들의 비호 하에 사법 절차를 회피한 것이다.⁴⁾

게다가, 산디니스마와 자유주의자들 사이의 협약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민중 조직들의 활동을 침체시켜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아르놀도 알레만의 통치기간 동안(1997-2002) 역병처럼 번진 부패에 우호적인 조건들을 낳았다.⁵⁾

마지막으로, 니카라과는 세속국가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약화되었다. 차모로 정부에서 교회는 교육과 출산건강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후 알레만 집권기에 교회는 산디니스마와의 협약이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공헌하고, 협약 이후 기세등등하게 확산되는 부패를 은폐하는 데도 기여했다.⁶⁾ 교회가 협약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1980년대에 극렬하게 대립하던 산디니스마와 교회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 밀착이 2007년 대선에서 오르떼가의 승리에 기여했다.

세속국가 성격의 약화는 2006년 10월 드라마틱하게 표출되었다. 교회의 강력한 주장으로 의회에서 산디니스마와 자유주의자 의원들이 찬성하는 가운데 형법을 개정하여 치료적 낙태(의료상의 이유로 정당화되는 종류의 낙태. 예를 들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거나 치명적인 질환을 안고 있는 아이의 출산을 피하기 위한 낙태)를 불법화시켰다. 이때, 오르떼가 대통령의 영부인이자 대선에서 산디니스마 민족해방전선의 선거대

4) "Un test político para una sociedad en crisis" in *Envío* N°192, 3/2008, www.envio.org.ni.

5) A. Pérez-Baltodano, "Nicaragua: un experimento democrático en agonía, in *Nueva Sociedad* N° 199, 9-10/2005, pp.4-11, www.nuso.org/upload/articulos/3279_1.pdf.

6) A. Pérez-Baltodano, *Conversación con Nicaragua*, Anamá, Managua, 2007.

책본부 홍보담당자였던 로사리오 무리요(Rosario Murillo)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단호합니다. 낙태에 반대하고 생명에 찬성합니다. 종교적 신념에 찬성합니다. 신앙에 찬성합니다. 다시 길을 가기 위해, 매일 우리의 힘을 북돋아주는 하느님을 찾는 일에 찬성합니다.”⁷⁾

요약하자면, 1980년대 혁명 경험의 실패로 시작된 니카라과의 정치적·제도적 약화는, 다음 장에서 분석할 주요 특징들을 지닌 갱 국가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 조건들을 낳았다.

갱단과 갱 국가의 부정적 정체성

갱단은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즉, 한 가지 사상이나 한 가지 독특한 세계관 및 사회관으로 정의되지도 구별되지도 않는다. 이들은 획득한 권력, 장악한 영토, 미학을 통해 서로 차별화된다. 그러나 갱단의 정체성은 특히 다른 갱단의 대립과 나머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적대감으로부터 구축된다.

마찬가지로 갱 국가도 국가관이나 사회적 합의의 표현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특정 헤게모니의 대표자나 추동자 역시 아니다. 우리 관심사에 국한시켜 이야기하자면 갱 국가로서의 니카라과는 신자유주의적 비전으로 작동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반신자유주의 역시 아니다. 좌파로 정의되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자유무역협정과 강경보수 성향의 종교적 입장을 동시에 지지한다.

7) En Giorgio Trucchi, "Nicaragua: FSLN contra cualquier forma de aborto" in *Rebelión*, 19/8/2006, www.rebellion.org/noticia.php?id=36329.

깡 국가는 산디니스따 민족해방전선의 정체성 공백, 1990년에 권력을 상실했을 때부터 채택한 실용주의에서 비롯된 공백 위에 구축된 국가이다. 산디니스따 민족해방전선의 주요 홍보자인 리카르도 꼬로넬 까우츠는 실용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당화 한다.

정치는 선동, 조작, 구슬림, 속임수, 꿈의 판매, 함정, 도박, 의지의 매매, 갈취, 냉소, 뇌물, 임금협약, 족벌주의, 부패, 공약 남발, 영향력 남용, 거짓 말 반 진실 반 등을 속성으로 하는 게임일 뿐이다. [산디니스따 민족해방전선은] 그 게임을 배워야 했다.⁸⁾

철학자 러셀은 실용주의가 철학이 아니라 철학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하곤 했다. 니카라과의 여러 깡들이 그렇듯이 깡 국가는 철학이나 원칙에 입각한 체제가 부과하는 구속과 한계의 회피에 실용적이다. 깡 국가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적에 따라 달라졌다. “적과의 싸움은 집단 내부의 갈등을 중립화시키고, 일종의 사회화 메커니즘으로 이용되고, 집단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외부 세계와 경계를 설정한다” 라고 루이스 E. 코저는 사회적 갈등의 기능에 관한 자신의 고전적인 연구에서 지적한다.⁹⁾

깡단과 깡 국가의 정체성 유지에서 적의 중요성은 ‘구원’(舊怨, *traído*)의 중요성을 설명해 준다. 깡들의 기억 속에는 구원이 끝없이 남아있다. 호세 루이스 로차가 중앙아메리카의 깡단에 관한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구원은 깡의 ‘연료’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실마리이다. “아직 하지 못한 복수(復讐)가 깡단 내부를 결속시킨다”고 로차는 말한다.”¹⁰⁾

8) R. Coronel Kautz, “Política y ética en Nicaragua” in *El Nuevo Diario*, 23/9/2005, <http://impreso.elnuevodiario.com.ni/2005/09/23/opinion/1743>.

9) L. E.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The Free Press, Nueva York, 1956.

10) J. L. Rocha, “Traído y estigmas: dos claves de la continuidad de las pandillas” in *Dirinpro*,

갱 국가의 구원은 많다. 그 중 하나가 오르떼가의 막강한 영부인인 로사리오 무리요가 시인 에르네스토 까르데날에게 품고 있는 구원이다. 이는 시인이 산디니스따 첫 정부의 문화부 장관이었을 때 발생했다. 거의 15년이 지났는데 구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2008년 8월에 정부는 까르데날 관련 소송의 재개를 조장했다. 2005년 까르데날이 한 독일 기업인에게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원고 측 변호사인 호세 라몬 로하스 멘데스는 성희롱 및 강간으로 입양 딸에게 고소된 오르떼가를 변호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까르데날은 유죄를 선고받고, 은행계좌들이 차압되고, 자유마저 잃어버릴 참이었다. 국제적인 반발과 이그나시오 라모넷, 삐드로 까살달리가, 마리오 베네데띠, 주제 사라마구,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같은 저명인사들과 쿠바작가예술가동맹(UNEAC) 같은 단체들의 까르데날 지지 선언이 니카라과 정부를 막았다(하지만 그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위협은 아직 잠복 중이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편지는 시인이 받은 지지의 일레이다. “파렴치한 정부에 봉사하는 파렴치한 판사의 파렴치한 선고에 맞서 나는 위대한 시인이자 훌륭한 인물이며 내 영혼의 형제인 에르네스토 까르데날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¹¹⁾ 한편 주제 사라마구는 까르데날이 “본인 자신의 과거가 못마땅한 다니엘 오르떼가의 양심불량으로 인한 희생자”라고 말했다.¹²⁾

흔히, 조직은 추상적인 정의를 내리며, 특히 자신들의 적을 선택할 때

Nitlapán e Ideso, *Muerte arriba: las pandillas en Nicaragua 1999-2004*, Publications UCA, Managua, 2004, pp.23-53.

11) “Apoya Eduardo Galeano a Ernesto Cardenal” in *El Universal*, 28/8/2008, www.eluniversal.com.mx/notas/533775.html.

12) “Saramago defiende a Ernesto Cardenal” in *La República on line*, 29/8/2008, www.larepublica.com.pe/content/viex/240796.

에 융통성을 발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한 정의를 편의적으로 개인 및 단체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¹³⁾ 갱 국가로서의 니카라과의 추상적인 적은 ‘과두계급’이다. 이는 늘 재정의되는 개념이고 진정한 의미가 박탈된 개념이다. 니카라과에서는 갱 국가에 반대하는 모든 이가 과두계급으로 낙인찍힌다.

가족적 충성

가족적 충성은 갱단과 갱 국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공존의 원칙이다. 이러한 조직에서는 단체에 대한 그 어떠한 불충의 표현도 단호하게 처벌되며, 그 어떤 독립의 징후도 위험 신호로 여겨진다. 법을 어기는 것보다 우두머리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다.

이런 예로 마나과의 산디니스파 시장 디오니시오 마렝코에게 대한 국가의 공격을 들 수 있다. 그는 자유헌정당의 아르놀도 알레만 정부가 레뿌블리카 광장에 만든 분수를, 대통령과 영부인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파괴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해서 공격받게 되었다.¹⁴⁾ 그 분수는 갱 국가가 현재 자신이 장악한 영토에 상대방 갱단이 그려놓은 그라피티로 여겨던 것이었다.

갱은 그래서 조직원들의 절대적, 무조건적 지지를 요구하는 탐욕스런 조직이다.¹⁵⁾ 충성의 대가로 갱단은 조직원이 위협에 처할 때 보호해준다.

13) L. A. Coser, ob. cit.

14) Raúl Arévalo, “Conflicto FSLN-Nicho Marengo?” en *La Jornada*, 15/7/2007, www.lajornadanet.com/diario/archivo/2007/junio/conflicto-fsln-alcaldia-15.html.

15) Mauricio Rubio, *Crimen e impunidad: precisiones sobre la violencia*, CEDE, Bogotá, 1999; Martín Santos, *La Vergüenza de los pandilleros: masculinidad, emociones y conflictos en esquineros del mercado de Lima*, Centro de Estudios y Acción para la Paz, Lima, 2002.

갱단 조직원의 범죄 행위들은 이렇게 집단 내부에서 호지부지된다.¹⁶⁾

이와 마찬가지로 갱 국가는 조직원들이 위협에 직면할 경우 보호를 해 주고는 한다. 산디니스따 민족해방전선의 전 의원이자 주 코스타리카 대사인 헤라르도 미란다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미란다는 니카라과의 한 투자자를 갈취했는데 그 일이 녹음되고 말았다. 그 후 TV 프로그램 '에스따 세마나'의 조사로 그가, 산디니스따 민족해방전선 중앙 당사에서 니카라과의 무질서한 재산권 체계를 둘러싸고 거래를 하는 산디니스따 변호사 그룹과 공모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산디니스따 민족해방전선은 미란다를 보호해주어, 그는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조종하는 매체들은 이 사건을 조사한 기자들에게 맹렬한 비난공세를 퍼부었다. 오르떼가는 “자신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논리로 이 사건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기피했다.¹⁷⁾

권력의 특성

갱단의 권력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권력이다. 우두머리의 권력과 결정을 제한하는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¹⁸⁾ 따라서 갱 조직원들에게 “우두머리의 구체적 이미지와 권력의 추상적 개념 간의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¹⁹⁾ 그와 같은 일이 갱 국가에서도 일어난다. 이와 같은 중

16) María Santacruz Giralt et al., *Barrio adentro: la solidaridad violenta de las pasdillas*, UCA, San Salvador, 2001.

17) “Ortega evade grave caso de corrupción” in *Confidencial* N°537, 3-9/6/2007, www.confidencial.com.ni/2007-537/politica_537.html.

18) M. Santacruz Giralt, ob. cit.

19) Anthony Giddens,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1990.

류의 국가는 법규나 정치 규범의 구속을 받지 않고 지상의 왕자처럼 움직일 수 있기를 갈망한다.

그러한 갈망이 오르떼가의 권위적인 연설에 분명히 표현된다.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어느 산디니스따 혁명 기념일에서 오르떼가는 야당을 다음과 같은 말로 위협했다.

적이 우리를 찾으면, 우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매국노들이 우리를 찾으면, 우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배신자들이 우리를 찾으면, 우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의 돈을 받는 이들이 우리를 찾으면, 우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시인 루벤 다리오가 말했듯이 우리는 전쟁의 강철이나 평화의 올리브를 들어 올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²⁰⁾

오르떼가의 언어폭력은 갱 국가의 문화의 일환이다. 심지어는 검찰총장 에르난 에스뜨라다(Hernán Estrada)까지도 그의 언어폭력을 옹호한다. 예를 들면 그는 대통령이 폭력을 사용하여 비판자들을 억누르지 않는 것을 니카라과 국민이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다니엘 오르떼가가 거리 동원령을 내리면, 방송국이든 뭐든 간에 이 나라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을 텐데, 다행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시다.”²¹⁾

영토적 지배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갱단을 연구하는 어느 학자에 의하면, 그들이 장악한 공간은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종종 영토를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이나 정복했다는 느낌을 수반한다.”²²⁾ 영토에 대한 이러한 강박관념은 영토 장악이 주는 안정감

20) “Donde nos busquen, los traidores nos encontrarán” in *La Gente-La Primerisima*, 6/7/2008, www.radiolaprimerisima.com/noticias/general/32963.

21) Eloísa Ibarra, “Ortega exterminaría” in *El Nuevo Diario*, 23/11/2008, www.elnuevodiario.com.ni/nacionales/32387.

을 얻으려는 원초적 본능의 표출로 볼 수 있다.

동일한 본능이 갱 국가의 비근대적 혹은 전근대적 작동에서 감지된다. 사실 국가와 근대 사회는 국가에 대한 영토적 시각의 극복을 요구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토에 대한 정치적 비전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갱 국가는, 민주적 합의에 응답하는 사회통합 형태를 찾아야 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영토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비근대적 혹은 전근대적이다. 무엇보다도 갱 국가는 본능적으로 영토를, 생존을 위해 장악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영토를 갱단들처럼 자신들의 '세력권', '거주지' 혹은 '동네'로 인식한다.

니카라과에서는 야당이 시위를 벌이려고 할 때마다, 정부 대변인들이 산디니스모는 “거리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²²⁾ 거리의 방어를 운운하는 산디니스따 민족해방전선의 담론에는 공공장소라는 존재, 법의 틀 속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거리의 장악은, 자신들이 정복했다고 여기는 영토적 공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재산과 사람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에 대한 특별한 감성의 결과이다.

결론

갱 국가는 역사의 거울에 스스로를 온전히 비추는 데 실패한 니카라과 정치 엘리트들의 무력함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그러한 무력감은 오늘날,

22) Costa Pere-Oriol, *Tribus urbanas: el ansia de identidad juvenil. Entre el culto a la imagen y la autofirmación a través de la violencia*, Paidós, Barcelona, 1996.

23) Gustavo Porras, “FSLN quiere control total” in *La Prensa*, 24/9/2008; “FSLN se proclama dueño de las calles” in *La Prensa*, 23/11/2008.

모든 형태의 반대를 압살하기 위한 도구로 사회의 주요 부문을 —자유 대신 빵을 제공하면서— 조종하고 있는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의 불관용과 권위주의에서 표출된다. 또한, 대부분의 니카라과인이 겪고 있는 빈곤과 소외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담론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야당, 특히 좌파의 실패에서도 표출된다.

이리하여 21세기 초의 엘리트들은 19세기와 20세기와 마찬가지로 행동하고 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ía Márquez)의 주인공처럼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운명보다 못한 자들”로 남아 있다.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은 난맥상을 보이는 니카라과를 고착화시키려고 한다. 좌파는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에서 제1세계 사회민주주의의 시늉만 내려고 한다. 정부와 야당의 대립에서 승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들 중 어느 쪽이 승리해도 그것은 니카라과인 모두에게 실패의 연속일 뿐이다.

(최진숙 번역)